최형우 "후배들과 가을잔치 즐기려 뛴다"

최형우

1500타점 넘고 올스타 12 선정
항상 최선 다하는 게 내 스타일
40 넘어도 할 수 있다는 것 보여줘

KIA 타이거즈 최형우의 역사는 계속된다.

KIA 최형우는 지난 20일 한화와의 원정경기에서 홈런을 기록하면 이승엽(1498점) 두산 감독을 넘어 KBO리그 최다 타점 기록의 새로운 주인공이 됐다. 이 홈런이 투런포였기 때문에 최형우는 KBO리그 첫 1500타점 고지까지 동시에 넘었다.

'방출 신화' 주인공으로 꾸준하게 많은 기록을 만들어가면서도 큰 의미를 두지 않던 최형우에게도 최다 타점은 기다렸던 기록. 자신의 2003번째 경기에서 기록과 팀 승리를 동시에 만든 최형우에게는 경사가 겹쳤다.

최형우는 26일 발표된 KBO 올스타 '베스트 12' 나눔 올스타 지명타자로 선정돼 다시 한번 올스타 무대를 밟는다.

102만1304표로 팬투표 1위에 오른 최형우는 선수단 투표에서도 168표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선수단 투표 2위는 LG 김현수로 76표.

"이 나이에 뽑아준다는 자체가 말이 안된다. 너무 감사하다. 아직 나를 잊지 않았다는 의미다"며 웃음을 보인 최형우는 "후배 선수들이 나를 뽑아줘 고맙다. 아직 후배들한테 내 이름이 보이이는 것 같다고 느꼈다"며 베스트 12 선정 소감을 밝혔다.

1500타점 고지를 넘은 최형우의 다음 목표는 없다. 원래 특별한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게 최형우의 스타일이다.

최형우는 "정말 목표가 없다. 원래 성격이 있는 그대로만 이야기한다. 될 지 알 될지 모르는 먼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다"며 "예전에는 목표가 있었다. 3관왕도 해봤으니까 MVP도 해보고 싶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개인 기록을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것이다. 내가 신이 아닌 이상 당연히 포기된다. 팀이 가을 잔치하고, 후배들과 파이팅 하는 것을 원하지만 개인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건 없다. 아예 없다"고 말했다.

기분 좋게 최다타점과 올스타 베스트를 이루기는 했지만 지난 2년 위기도 있었다. 2021시즌 망막이상으로 고전했고, 40대에 접어든 지난 시즌에는 초반 부진으로 우려를 샀다.

하지만 올 시즌에는 시작부터 좋았다. 개막 후 4월까지 0.316의 타율을 기록했고, 5월에도 0.324 타율을 자랑했다.

27일 전까지 9개의 홈런도 기록했다. 1500타점을 채운 기록적인 홈런을 만든 최형우는 4월 21일 삼성전에서는 역전 끝내기 스리런도 장식하면서 극적인 순간도 연출했었다.

지난 2년과 다른 흐름이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달라진 것은 운, 자신감이다.

최형우는 "초반에 운이 따르니까 자신감이 붙었다. 작년에는 초반 잘 안돼서 소극적으로 했던 것 같다. 타구 스피드까지 떨어지니까 빠질 게 잡히기도 했다. 올해는 운이 좋다 보니 자신 있게 치게 된다. 타구가 움직이면서 수비 옆으로 빠지기도한 덕분에 3할을 기록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운을 말하기는 하지만 철저한 자기 관리가 바탕이 된 결과다. 최형우는 올 시즌에 앞서 미리 스프링캠프가 마련된 미국 애리조나로 건너 가 자체 캠프를 하면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캠프를 치르고, 시즌을 준비했다.

최형우는 "올 시즌은 재작년 후반기 느낌, 작년 후반 느낌이다. 지금 뭔가 좋아진 것은 아니다. 작년 전반기는 딴 사람 된 것처럼 이상했던 것이다. 타격하는 느낌은 똑같은데 지난해 전반기는 바보가 되고, 내 자신을 잃어버린 시간이었다"고 돌아봤다.

내년이면 한국 나이로 42살. 특별한 목표가 없다고 하지만 언제가 될지 모르는 마지막을 위해, 후배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릴 생각이다.

최형우는 "내가 프로 들어왔을 때만해도 선배들 32~33살 정도 밖에 없었다. 나도 그렇고 양의지(두산), 강민호(삼성)도 더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베테랑을 보는 눈빛이 달라질 것이다. 40넘어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몸이 될 때까지 더 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좋은 성적으로 팀에 기여해 후배들과 또 다른 가을 잔치를 즐기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그래서 나성범과 김도영의 가세가 반갑다.

그는 "나성범과 김도영은 슈퍼스타다. 선수들 역할이 다르고 각자 위치에서 해야 팀이 돌아가지만 일단 두 선수가 와서 라인업이 바뀌었다. 이 정도 존재감 있는 선수들이다"며 "후배들과 잘해서 가을 잔치에 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장타소녀 방신실, 우승 전략은 '18번홀 투온'

KLPGA 맥콜·모나 용평 오픈 버치힐서 개막

방신실

올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에서 슈퍼스타로 떠오른 방신실(18)이 시즌 두 번째 우승 사냥에 나선다.

방신실은 30일부터 사흘 동안 강원도 평창군 버치힐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리는 KLPGA투어 맥콜·모나 용평 오픈(총상금 8억원)에 출전한다.

올해 데뷔해 8개 대회밖에 치르지 않았지만, 방신실은 이름값에서는 전체 출전 선수 132명 가운데 으뜸이다.

300야드를 넘나드는 시원한 장타로 이미 KLPGA투어 최고의 흥행카드가 됐다.

그러나 방신실은 멀리만 치는 선수가 아니다.

그린 적중률 1위(77.78%)가 말해주듯 아이언과 웨지샷이 어떤 선수보다 정확하다.

방신실은 압도적인 장타와 정확한 아이언샷을 앞세워 평균타수 3위(70.67타)에 이름을 올렸다.

상금랭킹도 어느새 9위(3억183만원)다.

지난 5월 E1 채리티 오픈에서 벌써 우승을 신고한 방신실은 이제는 대회 때마다 우승 후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물이다.

방신실이 버치힐 컨트리클럽 18번 홀(파5)을 어떻게 공략할지 벌써 관심사다.

버치힐 18번 홀은 526야드지만 오르막이 심해 실제 거리는 600야드가 넘는다.

지난해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윤이나가 두 번 만에 그린에 볼을 올리기 전까지는 어떤 선수도 이곳에서 투온을 시도한 적이 없고 성공한 적도 없었다.

그때까지 무명이나 다름없던 윤이나는 버치힐 18번 홀에서 두 번째 샷으로 홀 7m 옆에 볼을 올려 벼락스타가 됐다.

장타력에서 윤이나를 능가한다는 평가를 받는 방신실은 버치힐 18번 홀에서 얼마든지 투온이 가능하다.

지난해 윤이나는 최종 라운드에서 1타차 2위였기에 18번 홀에서 승부를 걸었다.

방신실 역시 이곳에서 승부를 걸어야 할 순간이라면 투온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 윤이나의 장타를 정교한 웨지샷으로 막아내고 정상에 오른 임진희는 대회 2연패와 함께 지난 5월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에 이어서 시즌 2승에 도전한다.

임진희는 KLPGA 챔피언십 8위, 한국오픈 9위, 롯데 개업 8위 등 어려운 코스에서 열린 대회에서 성적이 좋았다.

지난해 12월 시즌 개막전 우승 이후 아직 시즌 2승을 이루지 못한 상금랭킹 2위 박지영, 준우승 3번으로 우승에 목마른 박현경, 생애 첫 우승에 근접한 박주영도 주목할 선수들이다.

김해림, 김시원, 박채윤, 이소영 등 버치힐에서 우승을 맛본 4명은 이 대회 두 번째 우승을 노린다.

/연합뉴스

4일 만에 … "잘만났다 전북현대"
광주FC, FA컵 4강 새 역사 도전

28일 전주월드컵경기장

6년을 기다린 승리를 만든 광주FC가 분위기를 이어 FA컵 새 역사에 도전한다.

광주는 28일 오후 7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전북현대를 상대로 2023 하나원큐 FA컵 5라운드 8강전을 치른다.

4일 만에 재개되는 두 팀의 맞대결이다.

광주는 지난 24일 전북을 홈으로 불러들여 K리그1 19라운드 경기를 치렀다. 5000명이 넘는 관중이 입장한 가운데 치러진 대결에서 광주는 승리의 만세 삼창을 외쳤다.

광주다운 공격이 눈길을 끌었다.

전반 19분 두현석이 띄운 공을 이순민이 백헤더로 연결하면서 시즌 첫 골을 만들었다. 세트피스에서 약속된 플레이로 선제골을 넣은 광주는 후반 막판 교체 투입된 이건희의 골로 2-0 승리를 거뒀다.

나란히 시즌 첫 골을 넣은 두 선수 뿐만 아니라 토마스, 엄지성, 이희균 등 다른 공격 자원들도 화려한 드리블과 패스로 전북에 맞섰다.

골키퍼 이준의 활약도 눈부셨다.

이준은 스타플레이어를 앞세운 전북을 상대로 안정된 볼처리와 슈퍼세이브로 무실점 승리를 완성했다.

U-24 대표팀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돌아온 정호연도 교체로 투입돼 좋은 컨디션을 보였고, 이건희의 골도 도왔다.

이날 승리로 광주는 2017년 4월 30일 이후 2247일 만에 전북전 승리를 기록하면서, 5위로 뛰어올랐다.

광주는 앞선 승리의 여운을 안고 이번에는 창단 첫 FA컵 4강이라는 새 역사를 노린다.

이번 경기에서는 또 다른 선수들이 영웅 탄생을 노린다.

24일 팽팽한 승부가 펼쳐졌고, 7월 2일에는 '디펜딩 챔피언'이자 1위 질주를 하고 있는 울산현대와의 20라운드 경기가 예정되어 있다. 무더위 속 강행군이 예고된 만큼 체력관리가 필수다. 앞서 많은 경기에 나서지 못한 선수들의 컨디션 점검도 필요한 만큼 이번 경기에서는 로테이션이 가동될 전망이다.

이으뜸, 신창무, 김경재 등 베테랑 선수들을 중심으로 오후성, 김재봉, 박한빈 등 패기 넘치는 젊은 선수들이 전북전 연승을 노리게 된다.

앞선 패배를 설욕하기 위한 전북의 뜨거운 공세가 예상된다.

조규성, 송민규, 구스타보 등 막강한 공격진에 정우재, 정태욱, 최철순 등 탄탄한 수비진까지 공수 전반에 걸쳐 스타플레이어도 즐비한 만큼 광주는 탄탄한 수비로 상대를 묶고, 역습으로 빈 틈을 노려야 한다.

FA컵 포함 7경기에서 5승 2무를 기록하고 있는 광주가 전북과의 리턴매치에서도 승자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고진영, 총 159주 여자 골프 세계 랭킹 1위 '신기록'

고진영(사진)이 총 159주간 여자 골프 세계 랭킹 1위 자리를 유지해 이 부문 신기록을 세웠다.

고진영은 27일 오전 발표된 여자 골프 세계 랭킹에서도 1위를 지켜 개인 통산 159주간 세계 1위를 유지했다.

이로써 고진영은 은퇴한 로레나 오초아(멕시코)가 2010년 달성한 158주 세계 1위 기록을 13년 만에 뛰어넘었다. 고진영은 이번 주 세계 랭킹에서 랭킹 포인트 8.31점을 획득, 7.45점의 2위 넬리 코다(미국)를 앞섰다.

고진영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를 통해 "오초아와 같은 선상에서 여러 사람에게 언급되는 것이 영광"이라며 "행복한 일이지만 또 겸손해진다"고 소감을 밝혔다.

2006년 창설된 여자 골프 세계 랭킹에서 총 100주 이상 1위를 지킨 선수는 고진영, 오초아를 비롯해 리디아 고(뉴질랜드·125주), 쩡야니(대만·109주), 박인비(106주)까지 5명이 전부다.

고진영은 2019년 4월 처음 세계 1위가 됐으며 이후 2019년 7월, 2021년 10월, 2022년 1월 올해 5월에 다시 1위 자리를 탈환해 총 159주를 채웠다.

오초아의 경우 2007년 4월부터 2010년 5월까지 3년 넘게 158주 연속 세계 1위를 지켰다.

고진영의 최장 연속 1위 기록은 2019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00주다.

/연합뉴스